하이킹 스토리.

스위스정부관광청, 하이킹 2019 론칭

다시, 자연의 품으로
하루에도 수 차례 산을 오르는 남자
라인 폭포의 굉음 들으며 평온한 와인 체험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비교해 보는 과거와 현재

하이킹은 스위스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다. 세계의 많은 여행자들도 하이킹을 위해 스위스를 찾고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9 년 여름, '다시, 자연의 품으로.'라는 주제하에 '하이킹' 캠페인을 론칭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스위스에서 하이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와 코스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스위스의 하이킹에는 자연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의 다채로운 면모도 녹아있다. 자연의 품 속을 거닐며 스위스 사람들이 이어오고 있는 문화와 로컬들을 만나보는 즐거움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어 준다. 그들이 전하는 하이킹 스토리를 소개한다.

1. 미텐맨(The Mythen Man).
아르민 셸베르트(Armin Schelbert), 정상의 남자

아르민 셸베르트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산, 그로스 미텐(Gross Mythen)을 하루에도 몇 번씩, 20 년째 오르내리며 하이킹을 해 왔다. 한 평생 4,600 번도 넘게 오른 산이다. 그 누구보다 많이 올랐음에 틀림 없다. 지루하지 않냐 물으니 그의 대답은 단호하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이 산과 1,898m 위에서 바라보는 자연, 그리고 황홀한 전망에 매료되지 않은 적이 없단다. 정상에서 만나는 마법같은 일출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로스 미텐은 중부 스위스에 있는 산이다. 슈비츠(Schwyz)와 아인지델른(Einsiedeln) 사이에 위치해 있다. 클라인 미텐(Klein Mythen), 하겐슈피츠(Haggenspitz)와 함께 미텐 산맥을 이룬다.

아르민 셸베르트는 손질이 잘 된 수염에 새하얀 백발, 적당히 탄 얼굴을 가진 진장한 산악인이자, 은퇴한 현장 관리자다. 74 세의 그는 그로스 미텐에서 멀지 않은 쉰델레기(Schindellegi)에서 자랐다. 지금은 매일같이 열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중에는 산 발치에서 살고 있다.

미텐과 사랑에 빠지다.
사춘기 시절 그와 그의 친구들은 종종 쉰델레기부터 미텐 지역까지 자전거를 타곤 했었다. 거기에서 여러 봉우리로 하이킹을 즐겼다. 그로스 미텐에 대한 그의 특별한 사랑은 수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99 년 동료에 의해 만들어 졌다. 아인지델른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던 동료는 오후 쉬는 시간 동안 항상 산에서 하이킹을 하면서 아르민에게 정상에 오르는 맛을 알려 줬다. 그 후로 아르민은 그로스 미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며 등반 횟수를 기록해 오고 있다.

46 번의 지그재그가 만들어 내는 즐거운 하이킹.
이른 아침, 세상이 아직도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아르민은 머리 손전등을 쓰고 하이킹 폴을 집어 들고 그로스 미텐을 향해 오른다. 미텐 트레일은 3km 거리도 채 안되는데, 홀체그(Holzegg)부터 정상까지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46 번의 구불구불한 커브길로 이어져 있다. 500m 의 오르막이 있다. 40 분이면 정상에 오르는 아르민에 반해 일반 하이커들은 그 두 배 이상이 소요될 트레일이다. 아르민과 미텐 협회 친구들은 이 커브길에 숫자를 매겨서, 하이커들이 응급 상황에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짝수는 좌회전 길이고, 홀수는 우회전 길이다.

“이 산은 어렵지 않지만, 존중을 요하죠.” 아르민은 말한다.

아침이 깨어난다.
아르민은 특히 새벽녘에 하이킹하는 것을 좋아한다. 새 날이 서서히 다가오는 이 은밀한 시간에 산과 자연을 더욱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다. 오르는 길에 샤모아를 자주 만난다. 그로스 미텐에서는 사냥이 금지되어 있고 야생 동물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킹 중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다. 제일 처음 산 봉우리에 도착하면 그는 오두막지기 프랑크(Frank)를 돕는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다른 하이커들이 정상에 도착하기 시작한다. 머리 손전등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떠오르는 해는 이제 하늘을 환히 비춘다.

마법같은 일출.
스위스 동부의 산 봉우리 위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하늘을 오렌지와 붉은 색으로 물들이며 놀라운 자연의 마법을 선사한다. “일출은 매번 다르죠. 안개가 없는 날이면 이 세상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같은 풍경이죠.” 아르민은 활짝 웃으며 말한다. 알프스 전지대에 있는 그로스 미텐은 홀로 우뚝 솟아있어 알프스와 루체른 호수 근처의 마을과 도시 풍경을 한 눈에 보여 준다. 이 풍경과 마법같은 일출은 그가 굳이 일찍 일어나 애를 쓰며 산을 오르게 만드는 이유다. 깊은 곳에서 울리는 행복감말이다.

“여긴 완전 꿈결같은 곳이죠.” 아르민이 말한다.

미텐에는 친구들과 조력자도 많다. 하이커들이 첫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 아르민은 음료 서빙을 돕는다. 정상에 자리한 오두막 스태프들과 잘 어울리는 그는 함께 근사한 팀을 이룬다. 장상 레스토랑은 5 월부터 10 월까지 일출부터 일몰까지 문을 연다. “혹은 스위스 국기가 계양될 때 언제든 문을 열죠.”라고 아르민이 말한다. 그로스 미텐은 인기 높은 하이킹 목적지이고, 그래서 산에서도 할 것이 많다. 미텐 협회 친구들은 이런 임무를 맡아 정상 레스토랑과 미텐 트레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미텐 우체부.
완벽한 정상을 만들어 주는데 기여하는 것 중에는 전설적인 미텐 너트 혹은 아몬드 크로아상이 있다. 매 계절마다 1 만 2 천개 정도가 팔려나가는 인기 품목이다. 예전에는 아르민이 손수 이 크로아상을 실어 날랐지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때였다. 지금은 헬리콥터로 대량의 배송이 이루어 진다. 그래도 아르민은 여전히 조금씩은 직접 나르기 좋아한다. 오두막 스태프들이 보내는 편지나 전 세계 관광객들이 정상에서 보내는 알록달록한 엽서도 그가 없으면 배달되지 않을테다. 진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상에 위치한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면 세계 어디로든 우편물을 부칠 수 있다.

“난 이 산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이 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인터뷰를 마친다.

- 홀체그(Holzegg)에서 정상까지는 하이킹으로 약 1 시간 20 분이 소요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 정상까지의 거리는 약 2,400m 다.
- 슈비츠(Schwyz)를 내려다 보는 이 산의 높이는 해발고도 1,898m 다.

2. 포도밭부터 라인 폭포까지, 그리고 초록 구릉지대
샤프하우저란트(Schaffhauserland)에서 평온한 와인 체험

햇살이 부서지는 노란 들판과 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라는 언덕의 숲을 바라보며 초록 포도밭 사이를 거닐다 보면 어느새 라인 폭포의 굉음이 들려 온다. 샤프하우저란트의 풍경은 참 아름다우면서도 다채롭다. 하이킹 중에 로컬 와인너리에 들러 꼭 한 번 시음을 해 볼것을 권한다.

샤프하우저란트는 스위스 북부에 자리한 수 세기의 와인 생산 지대로, 초록의 구릉지대와 라인 폭포가 자리한 아름다운 지역이다.

할라우(Hallau) 마을을 내려다 보는 생모리츠(St. Moritz) 교회 탑이 아름답다. 스위스 독어권 최대의 와인 산지로, 이 교회탑은 계곡과 클레트가우(Klettgau)의 커다란 반원의 지형을 따라 일군 많은 포도밭 언덕을 수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교회탑은 과거에는 순례자들에게 인기 높던 목적지였는데, 오늘날에는 길게 뻗어 난 하이킹 출발지로 이용되고 있다.

포도로 뒤덮인 언덕을 장악하는 것은 고요와 뜨거운 여름 햇살이다. 포도는 짙은 초록으로 빛을 발하고, 몇몇 와인 메이커가 가지 치기를 하느라 분주하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루카스 브린골프(Lukas Bringolf)다. 3 년째 할라우에 있는 와이너리에서 일을 하며 그만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블라우부르군더(Blauburgunder) 포도는 피노 누아(Pino Noir)라고도 불리는 품종인데, 이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고급 포도다.

“와인 생산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발명가가 되어야 하죠.” 24 세의 전문 와인 테크놀로지스트는 “포도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 내어 좋은 와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깨닫는 것”에 특히 재능이 있다. 그가 묘사하는 와인에 대한 열정이다. 할라우의 와인 생산 전통을 살아 숨쉬게 하는 젊은 와인 생산자 중 한명인 그다.

“와인 생산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원을 가꾸듯 포도 나무를 가꾸죠.” 그는 말한다.

할라우는 와인 애호가들에게 천국이다. 래브휘위슬리(Räbhüüsli)라 불리는 포도밭 오두막에서 잠시 쉬어간다. 여름철 주말에 한해 루카스 브린골프와 와인 생산자 네 가족이 순번대로 운영하는 곳이다. 하이커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목을 축이며 좋은 와인 한 잔과 함께 맛깔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샤프하우저란트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의 하이킹은 특별하다.
하이킹을 하는 중에 목적지가 끊임 없이 시야에 나타난다. 저 멀리 아름다운 언덕이 연달아 나타난다. 바로, 샤프하우저 란덴(Schaffhauser Randen)이다.

이 언덕들은 계곡 위 500m 까지 뻗어나 있는데, 하이커들은 정상에 올라 뷰를 즐길 수 있기까지 꽤 열심히 걸어야 한다. 꼬불꼬불한 트레일을 따라 올라가 널찍한 숲을 지나야 한다. 나무와 수풀 너머에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숨어 있는 지블링어 란덴투름(Siblinger Randenturm) 타워와 인상적인 건축물이 갑자기 시야에 나타난다.

꼭대기까지 99 계단을 올라가면 기막힌 풍경과 다채로운 색상의 퀼트같은 들판이 한 눈에 들어오며, 클레트가우(Klettgau)의 전망이 나타난다. 사이사이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방대한 지역은 2018 년 1 월부터 샤프하우젠 자연 공원에 속해 있다.

라인 강은 이 지역의 동맥이나 마찬가지로, 샤프하우젠란트의 특징을 규정짓는 중요한 물길이다. 샤프하우젠을 향해 강둑을 따라 걷다 보면 이 지역의 전형적인 보트, 바이들링에(Weidlinge)가 눈에 띈다. 역사적인 구시가가 아름다운 샤프하우젠 마을이 점차 가까워진다.

지난 빙하 시대에서 들려오는 환영 인사가 귓가에 아른댄다.
천둥같이 울려대는 라인 폭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샤프하우저란트 하이킹의 하이라이트인 라인 폭포에서 자연의 경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폭포는 23m 나 되는 깊이로 쏟아져 내린다.

클레트가우-라인 트레일은 할라우의 와인 생산자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파노라마 트레일을 따라 광활한 을 지나 란덴 언덕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하이킹 트레일이다. 하이킹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지블링어 란덴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샤프하우젠까지 계속 걸어볼 수 있다. 라인강을 따라 난 산책로가 아름다운 역사적인 마을, 샤프하우젠까지의 하이킹은 즐거운 체험이 되어 준다. 그리고 노이하우젠(Neuhausen)에서 만나는 라인 폭포로 아름다운 하이킹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 할라우에서 샤프하우젠까지의 하이킹은 2 일이 소요된다.
- 클레트가우-라인 트레일의 총 거리는 46km 다.
- 총 오르막 및 내리막 거리는 1,400m 다.

- 할라우/오베르할라우(Oberhallau) 지역의 와인 생산용 포도 재배지는 200 헥타르다.
- 샤프하우젠의 포도재배는 블라우부르군더라 불리는 피노 누아 품종이 70%를 차지한다.
- 라인 폭포가 형성된 것은 1 만 5 천여년 전의 일이다.

3. 괴테가 발자취를 남긴 곳
작가 위어겐 파흐텐펠스(Jürgen Pachtenfels)괴테가 여행한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투어

그의 작품, “햇살에 비추는 저 멀리 산들(Ferne Berge im Sonnenschein)”에서 위어겐 파흐텐펠스는 괴테의 두 번째 스위스 여행 발자취를 따라간다. 베르네제 오버란트를 지나는 여행으로 1779 년의 일이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절묘하게 비교하며 괴테의 잘 알려지지 않은 면모를 드러낸다.

베르네제 오버란트는 베른(Bern) 칸톤에 위치한 알프스 지역을 일컫는다. 이 지역에는 툰(Thun)과 브리엔츠(Brienz)를 비롯해 유명한 세 알프스 봉우리인 아이거(Eiger), 묀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가 자리한 곳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작가 위어겐과 그의 부인 마들렌(Madeleine)과 함께 우리는 베르네제 오버란트에서 여행을 시작했다. 모든 것을 위어겐에게 맡길 참이다.
“괴테는 사실상 내 동료였어요.”
그는 이렇게 운을 뗀다.

그의 책, “햇살에 비추는 저 멀리 산들 – 괴테와 함께 베르네제 오버란트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괴테는 문법 학교에서 신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문학을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내 연구 후 나는 행정 법률가이자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 쉴레스비그-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에 있는 정부기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괴테는 튀링겐 공작(Duchy of Thuringia) 행정부의 장관이었다.”

“2003 년, 내 아내 마들렌과 나는 베르네제 오버란트의 마이링엔(Meiringen)으로 이사를 했다.” 그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귀족이 모험을 찾아 나설 때
괴테의 여행 그룹은 1779 년 10 월 8 일 베른(Bern)에서 만난다. 말을 타고 말이다. 그 당시 스위스는 관광의 천국이라는 타이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대중 교통이나 이정표가 설치된 하이킹 트레일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다.

작세-바이마르-아이제나흐(Saxe-Weimar-Eisenach)의 대공이었던 카를 아우구스트(Karl August)와 그의 친구 랑어 본 베델(Ranger von Wedel) 경, 괴테의 비서인 자이델(Seidel)이 괴테의 모험스런 여정에 동행했다.

자연이 찰칵 소리를 부를 때
그로서 샤이데그(Grosser Scheidegg)를 오르는 것은 위험하고 힘들다. 계속 불어오는 바람은 괴테의 여행 그룹 멤버들을 추위에 떨게 만들었고, 겨울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명백히 깨닫게 했다.

괴테와 비서 자이델은 그룹에서 낙오되었다. 아무도 그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괴테와 자이델은 다행히 동행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샤이덱을 오를 때 우리는 두터운 옷차림을 갖췄다.” 괴테는 말했다.

물이 주연인 곳
츠비르기(Zwirgi) 전망대에서 괴테와 동행자들은 하슬리탈(Haslital) 계곡과 마이링엔(Meiringen) 아래까지 뻗어난 웅장하고 장엄한 풍경으로 보상을 받았다. 지금은 여행자들은 가스트하우스 츠비르기(Gasthaus Zwirgi)의 테라스에서 마이링엔의 전통 머랭을 맛보며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이 전망대 아래로 라이헨바흐(Reichenbach) 폭포가 천둥같은 소리로 일곱 개의 바위를 지나며 깊이 깊이 떨어져 내린다. 이 폭포수는 로젠라우이(Rosenlaui) 빙하가 녹은 것으로, 인상적인 로젠라우이 계곡을 지나며 80m 높이의 절벽을 떨어져 내린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우리의 창문 밖으로 1779 년 괴테가 지났던 길이 내려다 보인다. 지금의 츠비르기를 건너 계곡 아래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다.

마약같은 산이 있는 곳
괴테와 동행자들은 오베르슈타인베르그(Obersteinberg)를 올랐는데, 이 곳 역세 어렵고 위험한 산악 투어였다. 아예 초반에 여정을 포기하고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 괴테는 이 트레일을 이어가기 어려움을 인정했다. 비와 이른 일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우뢰같은 눈사태 소리에 대항하며 이 하이커들은 밤 중에 라우터브룬넨으로 철수하고 만다. 하지만 괴테는 이 고단한 여정 다음 날 하루 조차도 쉬지 않았다.

“이 곳에 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를 지나는 하이킹을 하러 온 것이죠.” 괴테가 한 말이다.

그가 이렇게 쉼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알고 지내던 수 많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에게 쉽사리 압도당하던 그였다. 그래서 그는 스위스 산에서 평화와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던 그는 여성들을 피해 스위스로 향했다. 그의 노트에서 괴테는 스위스로의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수 차례 밝힌다. 당시에 쓴 시에도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괴테와 그의 귀족 동행자들은 쉬임 없이 서둘러 산을 통과하고자 했기 때문에 주변의 수 많은 풍경을 즐길 틈이 없었다. 자이델의 급하게 쓴 노트에 잘 드러난다.

“우리는 낮 1 시에 슈바르츠발트알프(Schwarzwaldalp)에 있었다. 그 곳에서는 벨호른(Wellhorn), 베터호른(Wetterhorn), 엥엘호른(Engelhorn)이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다. 날씨는 화창했다. 우리는 농부들과 함께 우리가 싸온 점심을 먹었다.

보드라운 풀밭 이후엔 또 다른 역경이
1779 년에는 이 세련된 여행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숙소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 당시 이 지역의 호텔 및 외식 업계는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고, 준수한 숙소는 커녕 방 하나 구하기가 힘들었다. 관광객들을 맞이할 방이 충분한 게스트 하우스가 마련된 더 큰 여행지와 마을과는 달랐다. 그러나 동네의 판사와 행정관, 고위 공무원들은 이 시골에서 훌륭한 호스트가 되어 주었고, 그 명성을 즐기곤 했다. 베르네제 오버란트의 라우터브룬넨과 그린델발트(Grindelwald)의 교구는 특히 초기 여행자들에게 인기였다.

이런 연유로 인해 괴테와 여행 동반자들은 많은 곳에서 비교적 쾌적한 숙소를 찾는 일에 많은 문제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어느 곳에서도 숙소를 찾지 못한 일이 잦았다. 괴테와 자이델의 노트에서 이 주제가 일관적으로 등장하지 않아, 때때로 그들이 어디에서 하룻 밤을 보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괴테는 스타일 있는 숙박을 위해 이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빙하를 오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슈바르츠발트알프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380 년 동안 수공업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곳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치즈 셀러 하나가 슈바르츠발트알프에 서 있는데, 이것은 1637 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괴테가 하슬리탈로 향하는 하이킹에서 이 건물을 지났을 때, 이 셀러는 이미 142 년이나 된 건물이었다. 괴테는 급하게 노트에 썼다. “이런 치즈 보관소는 나무로 된 기반 위에 세워졌다. 땅에서 몇 피트 떨어져 있어서 건조한 공기가 아래로 통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건물이라 하면 발렌베르그 야외 박물관(Ballenberg Open-Air Museum)을 빼 놓을 수 없다. 스위스 전역의 역사적인 건축물 100 점이 넘게 모여 있는 곳이다. 괴테가 이 곳을 여행했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곳이지만, 지금 전시되어 있는 수 많은 건물들은 수백년이나 된 것들이다.

당시에도 알프스에서 치즈를 만드는 광경을 구경하는 것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인기있는 볼거리였다. 하지만 괴테 그룹은 서둘러 여정을 이어가느라, 치즈는 디테일하게 보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치즈 보관소와 땅 사이의 공간에 대한 괴테의 추측이 옳지만은 않은 이유다. 치즈 보관소가 기둥 위에 지어진 것은 아래로 바람을 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쥐들이 기어 올라가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